

# 26년만의 4당체제... 요동치는 대선정국

양자→다자구도 전환  
합종연횡 등 시나리오 복잡  
보수-진보 구도 새국면  
국민의당 새 길 모색 불가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의 27일 집단 탈당으로 원내 4당 체제가 현실화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 4당 체제는 길게 볼 때 1987년 개헌 이후 제13대 총선(1988년)을 통해 형성된 4당 체제가 1990년 '3당 합당'을 거쳐 양당 체제로 재편된 지 26년만이다.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정계 복귀와 함께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 시점(민자당-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을 기준으로 하면 20년 만이다.

이 같은 다당 구조는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한층 키우면서 차기 대권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의 구도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여야 4당은 오랫동안 대통령선거의 전형적 양상이었던 양자 구도에서 다자구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대선 정국의 혼돈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으로 양분돼 충돌하는 전통적인 대선의 양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우선 대선 유망도가 가장 '개혁보수신당'으로 명명한 비박계 신당이 정계개편의 핵으로 떠올라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 내 비주류 세력과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제3시대' 깃발을 든 국민의당과 신당이 여야의 주류세력인 '진문'(진문재인)·'진박'(진박근혜) 패권주의 정권을 명분으로



손에 손잡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29명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 기자회견에서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한 뒤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에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심심찮게 거론된다.

두 정파는 이념적으로 중도에서 만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지녔고 지역적으로는 호남-수도권 기반과 영남-수도권 기반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성공 가능성을 보이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남은 비주류까지 끌어모아 정치권의 중심으로 급부상할 수도 있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신당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호남쟁탈전과 진보 성향 지지층 확보 경쟁, 그리고 새누리당과 신당 사이에 벌어질 영남쟁탈전과 보수층 구애 경쟁 역시 앞으로 대선 정국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대선 출마를 시사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신당을 택하거나 정치권 외부에 머물며 신당과의 제휴를 이어간다면 이는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선두를 다투고 있는 반 총장이 내년 1월 중순에 귀국하는 것에 맞춰 새누리당의 비주류 의원 일부가 신당에 합류하는 방안을 타진 중인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

이다.

신당은 이날 중 일당 29명으로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마치고 1월 중순 전까지 최소 35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4당 체제가 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 1·2당 지위가 바뀌고, 이전까지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도 이제는 새로운 역할 모색이 불가피해졌다.

이 같은 구도는 한동안 원내 협상의 혼란을 더욱 키우고 국회의 생산성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 전망이 일단 우세하지만 거대 여야의 팽팽한 대립 구도가 허물어지고 협치를 통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이종구·정양석·정운천... 호남출신 3명 합류

가칭 '개혁보수신당'에 참여하는 호남출신은 이종구·정양석(광주·전남)의원들과 전북이 지역구인 정운천 의원 등이 있다.

이종구 의원은 보성 출신 이종재 전 의원의 아들로 17대 총선을 통해 정치에 발을 들인 뒤 20대 총선에서 3선(서울 강남구) 고지에 올랐다. 이번엔 신당의 정책위원장을 맡았다.

정양석 의원은 보성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교와 전남대를 나왔다. 당직자 출신으로 서울 강북구에서 재선을 했다. 신당의 원내수석부대표에 추대됐다.

고창 출신인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이명박정부에서 농업수산물부 장관을 지냈으며 19대 총선에서는 아쉽게 낙선했으나 20대 총선에서 재도전에 당선됐다. 5선의 국회부의장인 광주 출신 심재철 의원은 지난 21일 탈당을 결의할 때는 이를 울렸으나 이번 탈당 실행 시에는 빠졌다. 이에 대해 심 부의장은 27일 "지역구 민심을 좀 더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늦어도 창당 예정일인 내년 1월 24일 이전에는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누리 "실패한 탈당" 평가 절하 2野 "산적한 개혁법안 협치 기대"

### 여야 반응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27일 집단탈당 및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 공식 선언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애초 탈당 의사를 밝혔던 35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한 탈당'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관망파 의원들을 상대로 잔류를 촉구하며 추가 탈당 확산 저지에 나섰다.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에 동조한 것에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개혁과제 입법에 있어 협력을 기대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수를 분열시킬 에너지가 있다면 당을 변화시키는 데 힘을 모아 달라"면서 "혁신을 내세운 탈당이 실제로는 개인적 정치 야심, 정파적인 구원, 특정 대선주자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행태로 비치지 않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당한 분들이 오랜 시간 같이 국민을 위해 뜻을 모아온 책임 있는 정치인들인 만큼 보수 대통령의 길에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친박(친박근혜)계가 주축인 조선 의원 10여명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하고 비박계 집단 탈당을 비판하면서 추가 탈당을 고집하는 의원들에 대해 잔류를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장개업을 앞둔 보수신당이 건강한 보수정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동조했던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노선과 정책이 아닌 계파 간 집단싸움 때문에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건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어쨌든 새 정당이 개혁을 표방하는 만큼, 2월 개혁입법국회에서 개혁법안들에 대해서 협력이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신당은 먼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보수신당의 출범의 긍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모든 개혁 입법을 가로막아 온 새누리당의 절대 의석이 붕괴돼 '신(新) 4당 체제'가 출현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박지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와 YTN라디오를 통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다당제가 시작되는데, 때에 따라 연정도 가능하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가 요구된다"며 "대화와 협상의 시대가 열리고 협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천정배 "정권교체, 국민의당이 큰 역할"

###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 토론회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27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해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성장적인 세력이 모여 경쟁하고 페어플레이해 지도자를 세우면 국민의당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자격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지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은 호남세력과 안철수

전 대표 등의 무당파 세력이 공존하고 공생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이 스스로 기득권이 되거나 성을 쌓으면 망하지만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젖히고 받아들이면 정권교체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정치 복원의 계획으로는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인구가 많은 곳의 승자독식 구조로 호남이 가져야 할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며 "지지율만큼 국회의석을 가진 것으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 보수신당 보조금 15억원...새누리 7억원 줄어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27일 집단 탈당과 함께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에도 변화가 일게 됐다.

이날 신당 합류를 선언한 의원은 모두 29명이며, 지난날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가세할 예정이어서 신당은 일단 30명으로 출발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6년 4분기 정당별 경상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1월15일 현재 의석수 129명(김용태 의원 탈당 전)이었던 새누리당은 36억 9100만원을 받았다. 또 더불어민주당(121명)이 35억9000만원, 국민의당(38명)이 25억7600만원, 정의당(6명)이 6억830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은 총액의 절반을 원내교섭단체에 균등 배분한 뒤 나머지를 의석수, 총선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개혁보수신당은 내년 2월에 총 15억4800만원의 분기별 보조금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은 30억 1500만원으로 7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

고,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각각 20억7400만원과 21억4100만원으로 다소 적게 받는다. 원내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변함이 없다.

특히 신당은 창당 멤버가 더 늘어날 경우 국고보조금도 함께 증가할 수 있고, 내년 선거가 있는 해여서 경상보조금 1년치를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60억원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황 대행, 靑 첫 공식 행사...주한대사 5명 신임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로 부임한 주한 대사 5명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18일 만에 처음으로 권한대행으로서 청와대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사직 라사디 주한 모로코대사, 압둘라 사이프 알리 살람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 미하이 치우펙 주한 루마니아대사, 바테르 모하마드 이브라힘 알-아외디 주한 쿠웨이트대사,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가 이날 황 권한대행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연합뉴스

### 침단 8층 상가빌딩 매매

북구 오룡동 (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 감정가 55억  
매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침단 사무실 임대**

-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6천 월 5만원)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010-7384-7800

### 상가매매 전문

- ① 수원지구 3층 건물 어룡신협 앞 토 97평 건 145평 / 1층 (골프매점) 2층~3층(상가) ▶매가 16억 8천 (용 5억) 보 1억 월 700만
- ② 노대지구 (8층) 대단위 아파트 (코너자리) 토 25평 건 43평 1층 (식당/미용실) 2층 (식당/상가) 3층 (오피스텔 - 13개) (보약원 월 1천300만) ▶매가 27억
- ③ 월산동 (3층)상가 매매 (농성역 / 힐스테이트 5분) 토 132평 건 404평 1층 (은행) 2층~3층(상가) 4층~5층(독서실) 6층(주택) ▶매가 22억
- ④ 수기동 계인오피스텔 6층 (천변로 전망 최고) (올리브밀링 옆) (주차완비) 45평 보 1억 월 60만 ▶매가 1억4천만 (용5천)
- ⑤ 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999) 보 500만 월 40만 (용 2천4백만) ▶매가 6천9백만
- ⑥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1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 전원주택 최고 위치 ▶매가 8천만
- ⑦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클럽,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매가 8천 500만 보증금 500만
- ⑧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역 변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⑨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매가 3천 5백만

010-6670-9800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서구 금호동 (상가주택) 토 56평 건 75평 1층 (식당), 2층 (주택)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9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코너자리) 총 룠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6억6천
- 동구 수기동 (2층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 역 2분거리 4차선도로점 / 2층 상가건물 ▶감정가 3억 → 최저가 3억
- 장성군 북하면 (2층 식당) 토 280평 건 253평 식당 최고의 자리 / 백양사 관광지 위치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나주시 석현동 (2층 식당) 토지 551평, 건 239평 동신대학교 3분 거리 식당 최고 위치 / 주차완비 ▶감정가 5억5천 → 최저가 3억9천

### 침단지구 식당 임대

\* 평수 120평

◆ 한우식당 장어집 강력추천 !!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침단 메가박스 침단 산업단지 1분 삼성전자 정문 앞

★ 보 1억 월 300만

☎ 010-7384-7800 010-6670-9800